

 천주교 서울대교구 구로3동 성당 주보성인 :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08375 구로구 디지털로 27길 82 www.guro3cc.com ☎ 사무실 857-8541~2 팩스 857-8549	미사시간	주일	토요일 주일 : 16:00 (유·초등부 소성전), 19:00 06:30 (새벽), 10:30 (교중) 10:00 (중·고등부 소성전) 12:00 (낮) 19:00 (청년)
	평일		06:30 (새벽), 19:00 (저녁), 목요일 10:00
	예비자 교리		일요일 오전 09시 / 화요일 저녁 8시
	유아세례		토요일 오전 11시 (사무실 문의)
	연령회 총무		옥윤필 마티아 010-5117-5564

본당 설립 60주년 전 신자 성경 통독 봉헌 (2022. 3. ~ 2023. 9. 30)

알림

- 11월 16일(수) 11시 경로당 월례 미사가 소성전에서 있습니다.
- 매주 목요일 10시 40분 시니어 아카데미가 강당에서 있습니다.
- 새벽 미사는 05:50부터 입당 가능합니다.

회의

- 사목위원 워크샵
 - 일시 : 11월 26일(토), 9시 50분
 - 장소 : 본당

모임

단체명	일시	장소
1Cu-우리 어머니	11월 13일(일), 12:00	강당
2Cu-사도들의 모후	11월 13일(일), 13:30	강당
울뜨레아	11월 20일(일), 11:40	강당
3Cu-사랑의 모후	11월 20일(일), 13:00	강당

생활성서사 문서선교

- 일시 : 2022년 11월 12일~13일
 - 판매서적 : 각종 신앙 서적
 - 주관사 : 예수님의 까리따스 수녀회의 생활성서사
- ※ 신앙생활에 양식이 될 좋은 책과 월간지를 통해 일상의 삶 안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회 회원 모집 및 월례 모임

- 제대 및 꽃꽂이 봉사에 관심 있으신 분을 모집합니다.
- 월례 모임 : 매월 첫 화요일 10시 30분, 2교실
- 회장 : 마점순 이레네 010-6286-1389

* 서울대교구 제16지구 항동성당 신축지원 *

- 제16지구 사제회의 결정 (2022. 3. 3.)
 - 지원금액 산정 : 본당 신자 수 × 10,000원
 - 납부 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 ※ 10월 31일 현재 ₩18,300,000납부되었습니다.

* 돈보스코 오라토리오 학생 모집 *

- (맞벌이 / 이주민 / 다문화 / 다자녀)
- 전액 무료, 저녁 식사제공
 - 후원금계좌 : 신한 131-018-937372
(사) 국제청소년지원단

다음 주일(11/20) 국수잔치 및 청소 담당

국수잔치	18구역	청소	5구역
------	------	----	-----

◎ 우리들의 정성(11월 2일 ~ 11월 8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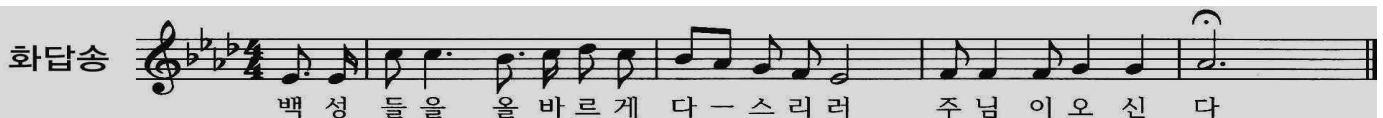
교무금	6,260,000원
주일헌금	4,277,500원
평신도 주일 2차 헌금	1,716,000원
감사헌금	김수자10만원 전형준10만원 윤기석 5만원 M.E.10만원

◎ 교중미사 전례봉사자 명단

월일	해설	복사	독서
11/13	구민서	조훈환	도현만
11/20	이인옥	오성환	김영균

◎ 성체 분배자 명단

월일	토요주일	06:30	10:30	12:00
11/13	이화봉	김인기	최석준	최승일
11/20	최승일	박승환	김영배	황태영



교무금 입금 계좌번호 : 우리은행 129-05-001894 예금주 : 천주교 서울대교구 유지재단
(※ 입금인은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적어 주세요.)

“모든 형제들” - 형제애와 사회적 우애에 관한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회칙

229. 남아프리카 주교들이 가르친 대로, 참다운 화해는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욕망보다는 다른 이들에 대한 봉사에 바탕을 둔 새로운 사회를 형성할 때” 실제로 성취됩니다. 이 새로운 사회는 “각자가 더 많은 부를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다툼보다는 자신이 소유한 것을 다른 이들과 함께 사용하는 나눔에 바탕을 둔 사회, 인간으로서 함께 있는 가치가 가정이든 국가든 민족이든 문화든 그 어떠한 소집단보다 더 중요한 사회입니다.” 한국 주교들은 진정한 평화는 “민족의 화해와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대화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노력으로 달성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230. 개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우리를 분열시키는 것을 극복하려는 꾸준한 노력은 모든 사람 안에 살아 있는 기본적인 소속감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모든 사람, 모든 사회단체가 참으로 집처럼 편하게 느끼는 사회가 유익한 사회입니다. 한 가정에서 부모, 조부모, 자녀가 모두 편안함을 느낍니다.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에게 어떤 문제, 그것도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자초한 일이라 하더라도 나머지 가족들이 나서서 그를 돕고 지지해 줍니다. 그의 고통이 가족 전체의 고통인 것입니다. ……가정들 안에서, 모든 이가 공동 계획에 이바지하고 모두가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면서도, 각자의 개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지하고 장려하는 것입니다. 가족들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간의 유대입니다. 가족끼리는 싸웠다가도 지나면 화해합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기쁨과 슬픔을 가족 전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 아내, 남편, 아버지, 어머니를 바라보는 바로 그 시선으로 정치적 적수나 이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사회를 사랑합니까? 아니면 우리 사회가 여전히 우리를 참여시키지 않고 우리에게 와 닿지 않으며 우리를 책임지지 않는, 우리와는 거리가 먼 어떤 것, 익명의 어떤 것으로 남아 있습니까?”